



주간통일정세 2008-01(2007.12.24~12.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0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지식인대회 참석자에 담요-솜옷 선물 전달 사실 보도(12/30,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국 지식인대회(11.30~12.1) 참가자들에게 담요와 솜옷, 생필품 등을 선물한 것으로 보도

나. 정치관련

- 북한, '혁명의 계승'과 '군영도의 계승' 강조(12/24, 노동신문)
 -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6돌을 맞아 "혁명의 계승은 곧 군(軍)영도의 계승"이라며 김일성 주석에 이은 김 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로 "강성대국 건설의 새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다"고 주장
- 김정일, '선군의 과녁'은 남한이 아닌 미국임을 강조(12/31,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김정일은 "우리의 적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며 우리의 싸움은 미제와의 싸움"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

다. 경제 관련

- 신의주 포장도로 건설 및 신의주시 락원지구-남신의주 연결 도로 건설 진행(조선중앙방송, 12/31)
 - "신의주시에 포장도로가 새로 건설되고"있으며, "신의주시의 락원지구로부터 남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가 건설되게 되면 시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더 잘 보장하는 데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고 보도
- 농촌주택 건설 강조: 올해 전국 농촌 살림집 1만3천여 채 건설(12/31, 조선중앙방송)
 -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370여 개의 농촌마을에 1만 3천여 채의 살림집과 960여 동의 공공건물이 본보기답게 훌륭히 건설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됐다"고 보도
- 北 무역정보 사이트 개설(12/31, 연합)
 - 최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경제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천리마'(www.dprk-economy.com)가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정치·경제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소개, 선전하고 상품광고 및 전자상업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홈페이지”이며,
- 북한 정부 당국이 “경제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여러 나라 기업과 회사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널리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음.

● **인민생활공채 추첨 실시 공개(12/29, 조선중앙TV)**

- 추첨을 통해 채권 구매자에게 원금과 함께 당첨금을 얹어주는 방식의 ‘인민생활공채’의 6차 추첨을 실시
- 이날 평성시에서 제6차 인민생활공채 추첨과 올해 4/4분기 추첨제 저금에 대한 추첨 실시
 - ※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 1년에 1~2차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 상환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녹화사업 주력 사실 부각(12/28,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와 황해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의 주요 산과 들, 도로와 마을, 공원 등에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 이깔나무 등을 비롯해 수 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함으로써 녹화사업을 강조

라. 군사 관련

● **전·후방군단에 경비병사단 편성(12/31, 연합)**

- 최근 일부 전·후방 군단에 특수전부대인 ‘경보병 사단’이 창설된 것으로 전해짐.
- 전·후방 수개 군단 예하에 경비병 사단을 별도로 편제한 것이며 비정규전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판단되고 있으나 휴전선에 경비병 사단이 전진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짐.
- 경비병 사단은 일반 보병사단보다 무장이 가볍고 병력 규모는 5천~6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MDL인근 콘크리트 장벽 해체 주장(12/30, 노동신문)**

-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으로 인해 “북남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의 실현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를 당장 해체할 것을 주장
- “콘크리트 장벽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고 6·15 통일시대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민족적·반시대적 범죄”임을 강조



마. 사회 관련

- ‘문학예술대상전’을 다매체 전자사전으로 제작(1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이 최근 ‘문학예술대상전’을 문서·사진·음성자료로 편집한 다매체(멀티미디어) 전자사전으로 제작했다고 보도
- 10대 최우수 선수 선정(12/27, 조선중앙TV)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는 올해의 최우수선수로 북한의 유도 계순희 선수(조선체육대학), 역도 차금철(4.25체육단), 복싱 김성국(평양시체육단), 체조 홍수정(평양시체육단), 다이빙 김철만(4.25체육단), 축구 리금숙(4.25체육단), 사격 김현웅(4.25국방체육단), 프로복싱 류명옥(상업성체육단), 유도 김철수(4.25체육단), 역도 임용수(기관차체육단) 선수를 선정
- 겨울철 ‘농민휴양’ 시작 사실 보도(12/26, 조선중앙통신)
 - 12월 초부터 2008년 2월 중순까지 ‘농민휴양’ 기간을 맞아 평양 고방산 휴양소에는 함경남도 장평군과 신흥군에서 “농업 근로자”들이 찾아 휴양하고 있으며,
 - 이들 농민은 인근 조선혁명박물관을 관람하거나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으며, 휴양소 내에서는 윗놀이와 장기, 배구 등을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

2. 대외정세

- 올해 통일·국제관계 발전 강조(12/30, 노동신문)
 -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국제관계 발전에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뚜렷한 자욱(자국)이 새겨진 격동적인 해”로 평가하고,
 - 특히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10·4 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위업 수행의 앞길에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됐으며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 됐음을 강조

가. 북·미 관계

- 미국에 대한 비난 지속(12/27, 평양방송)
 - “미국 호전계층이 제2의 조선전쟁 준비 책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조(북)·미 사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와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강조
 - 이에 앞서 26일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나. 북·중 관계

● 양형섭, 새해 대중 친선 강화 희망(12/26, 연합)

-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새해에도 조(북)·중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기대와 쌍방 공동의 노력,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하리라”고 강조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이명박 당선은 보수, 진보의 선택 아닌 서민들의 선택이라 강조(12/26, 조선신보)

-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요인은 “일부 미디어가 선전하는 것처럼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 구도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

나. 남북교류

● 남북, 2008년 1월 31일경 해주특구 공동조사 합의(12/29, 연합)

- 남북은 해주경제특구를 개성공단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2008년 1월 31일경 특구 건설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 남북 조선협력단지건설 ‘3통보장’ 지연(12/28, 연합)

- 남북은 25~28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에서 북한 안변, 남포지역 조선협력단지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양측이 2008년 3월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함.

● 남북응원단 ‘경의선이용’ 실무접촉 28일 개최(12/27, 통일부)

-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접촉이 28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최
- 주요내용은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

● 남북 공동 문학잡지 ‘통일문학’ 창간(12/26, 연합)

-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드는 문학잡지 ‘통일문학’이 2008년 1월 창간돼 남북 문학교류가 본격화



- 6·15민족문화인협회 남측 대표단(단장 염무웅)은 2008년 1월 하순 반년간지 '통일문학' 첫 호를 발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힘.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북한, 불능화 속도조정 표명(12/26)**
 -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 부국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맡은 경제적 보상 의무의 이행이 늦어져 불능화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표시했음.
- **중, 북핵 2단계 '행동 대 행동' 원칙 강조(12/27)**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2단계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 균형적으로 이행되도록 각방과 긴밀 협의 하겠다"고 밝혔음.
- **러 외무차관, "6자회담 1월 열릴 가능성"(12/28)**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회담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 6자회담이 1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 핵시설의 최종적인 폐쇄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을 초래하는 일부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중유 등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했음.
 - 또한 핵불능화 문제가 전문가들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중요한 것은 불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서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는 작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미 의회, 북핵 신고미흡 땀 예산집행 제한**
 -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



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 미 하원이 최근 통과(12/13)시킨 2008년도 정보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한 보고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 플루토늄 생산량 30kg 제시

- 북핵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을 방문(12/3~5)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에게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약 30kg이며 지하 핵실험(2006.10)과 핵 제조에 사용된 플루토늄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도쿄신문』이 베이징발로 보도(12/27)했음.
- 그러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5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북한측이 제시한 수치가 미국의 추정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일반적으로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4~6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WSJ, “미, 북한과 고위급 군사접촉 새로운 시도”(12/29)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서 북한 군부가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 지도부를 직접 접촉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북한 인민군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접촉 시도는 북한의 핵 시설 대부분을 결국은 군이 통제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할 경우 군 지도부가 과연 이를 따를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에서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 신문은 미국의 대북 군사접촉 시도는 최근의 많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특히 인민군 고위 관계자를 협상에 같이 참여토록 북한 외무성에 요구하면서 자신들도 소장급을 포함한 군 관계자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음을 말해왔다고 전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의 외교관들은 비핵화 협상은 외무성이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군사접촉은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2000.10)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한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7년간 매우 제한돼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 미 국무부, 북핵 신고 불이행 유감 표명(12/30)

- 북핵 2단계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 시한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아직까지 핵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능화 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확산활동을 정확하게 전면 신고하고 합의에 따른 불능화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중, “북·일 관계정상화 양국 국익 부합”(12/27)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중국과 일본 양국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일 양국 지도자는 6자회담이나 북한 비핵화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탈북자 전면 단속

-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2008.8)을 앞두고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베이징의 서방 소식통들이 밝혔다(12/30).
-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이나 다른 외국공관 등에 진입, 망명을 요구할 경우 자국의 탈북자 정책, 대북정책, 인권 문제 등이 국제여론의 비판대에 올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 공안 당국은 이러한 우려할만한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08년 초부터 특히 베이징 시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의 외국공관 진입을 확실히 차단키로 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 공안 당국은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 사무실 등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40여 명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국허가서를 발부해줄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영 군사전문지, “중, 10년 내 3개 항모함대 구축”

- 중국 해군이 강력한 잠수함대의 보유를 핵심으로 10년 안에 3개의 항모함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홍콩 「문화보」(文匯報)가 보도(12/31)했음.
- 신문은 영국 군사전문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인용, 중국 해군이 과거의 방어형에서 원양 작전능력과 해상 억제력, 해역 봉쇄 능력을 겸비하는 대해군(大海軍)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음.
-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은 전략적 목표의 핵심을 강력한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는 것에 두고 있음.

나. 일본 관계

● 일 외무성, ‘북한통’ 요직 전진 배치

-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납치문제 등 북한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 외교 라인에 북한에 정통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음(12/27).
- 일본 정부는 2008년 1월 중순 외무성 사무차관에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심의관, 외무심의관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 賢一郎) 아시아·대양주 국장, 아시아·대양주 국장에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주미대사관 공사를 기용할 방침임.
- 야부나카 심의관과 사사에 국장은 북핵 6자회담과 일본인 납북문제에 관한 북·일 교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사이키 공사도 북·일 협상의 일본측 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음.

다. 중·일 관계

● 중·일, 총리회담 개최(12/28)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을 방문(12/27~30) 하였음.
- 그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및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음.
- 후쿠다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일 총리회담에서 “일본은 이전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역사에 대해 진실로 반성한다”고 밝혔음.
- 양국 총리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일과 동중국해 자원개발, 국방교류와 안보대화 강화, 대만, 북핵 6자회담, 지구온난화, 경제 및 문화교류 문제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 그러나 동중국해 천연가스 공동개발 문제, 군비증강을 둘러싼 불신해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마련에 실패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